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

-정치적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한 길 연 (아주대)

1. 서론
2. 기본적인 유사성
3. 유사한 소재 및 장면의 상이한 활용
4. 정치적 갈등양상의 차이
5. 두 작품의 존재 층위
6. 결론

1. 서론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하소설이 강한 유형성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두 작품은 특히 긴밀한 상동성을 지니고 있다. <옥원재합기연>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응서대립담이 <완월회맹연>에서도 흡사하게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하소설에서 응서대립담은 그리 흔치 않은 단위담인데¹⁾ 두 작품에서 이러한 응서대립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점이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옥원재합기연>에 나오는 두 개의 응서대립담 모두 <완월회맹연>에서 흡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응서간의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발단하고 있는 바, 대하소설로서는 특이하게 당파간의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특히 남주인공 가문이 반대당파에게 밀려 實勢에서 밀려났다가

1)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6면.

복귀하는 장면이 작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하소설로서는 흔치 않게 남주인공이 가문의 정치적 위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流離하는 ‘분리(棄兒) 모티브’가 설정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된다.²⁾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두 작품은 문체, 서사전개방식, 중심삽화 등에 있어서, 여타의 장편소설들과는 매우 차별적인 반면, 서로간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한 바 있듯³⁾, 두 작품은 닮은꼴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흡사하게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본다면 두 작품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이성은 단지 부분적인 차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하게 될 때 각각의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은 가정 내적 갈등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정치적 갈등양상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두 작품을 더욱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두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작자를 <완월회맹연>의 작자와 동일 인물로 추론하는 가운데 그 근거의 하나로서 두 작품의 흡사한 면모를 지적하거나,⁴⁾ 소인형 인물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정치적 성향 차이를 거론

2) 대하소설 가운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반영된 <옥수기> 등의 경우에도 남주인공의 분리 모티브는 빠져 있다. <옥수기>의 남주인공 가유진은 그 부친이 귀양간 상황에서도 외 조부의 생신잔치에 참여하러 가고, 그곳에 가는 도중 여러 여성들과 인연을 맺을 정도이다. <옥수기> 등에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분리 모티브’가 탈락된 것은 상층사대부의 세계관 즉 계층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김종철, 「<옥수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41-50면 ; 송성욱, 「가문의식을 통해서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1-101면 ; 김종철, 「19C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2, 74-82면) 물론 <육미당기>의 경우에는 분리 모티브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가정내적 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기에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과는 다른 층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관악어문연구』22, 1997, 327-8면.

4) 정병설, 원글, 327-8면.

한 작업⁵⁾이 있었지만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대하소설 연구가 줄곧 <완월회맹연>을 논의로 한 채 진행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완월회맹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이 나올 정도로⁶⁾, <완월회맹연>은 180권이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대하소설 연구에서 늘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완월회맹연> 또한 대하소설의 연구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여 다른 작품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그러할 때 대하소설의 진면목들을 더욱 적실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옥원재합기연>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는데 정치적 갈등양상의 측면에 대해서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 모습이나 정치 인식 등을 통해 볼 때 정권에서 소외된 채 붕당의 폐해를 겪은 계층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논의되었다.⁷⁾ <완월회맹연>의 경우에도 18세기 초반의 정치현실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⁸⁾ 아직까지 이 작품에 드러난 정치현실이 어떠한 계층의식과 밀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⁹⁾ 그런데 이에 대한 접근은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으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 <옥원재합기연>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완월회맹연>

5)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국문학연구』 4, 국문학연구회, 2000.

6)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b.

7)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55-168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가 少論 계열의 江華學派일 가능성까지 아울러 추론한 바 있다.

8) 정병설, 앞글(1997b), 175-191면.

9) 물론 정병설(앞글(1997b), 175-191면)은 <완월회맹연>의 작가로 추정되는 전주이씨 기문과 관련하여 이 작품이 소론의 입장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 또한 이 작품의 계층의식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계층의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옥원재합기연>이 소론의 입장을 주로 보인다고 보았기에 <완월회맹연>도 마찬가지로 소론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경우, 두 작품에 존재하는 계층의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계층의식을 논함에 있어 특정 당파의 소속보다는 사대부 계층에 내재한 보편적 의식 층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0)과의 대비를 통해 <옥원재합기연>11)의 정치적 갈등양상 또한 더욱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타의 작품들과는 달리 정치적 갈등양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 두 작품이 대하장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적인 유사성

<옥원>에는 두 개의 핵사건¹²⁾이 존재한다. 소세경-이원외-이현영간의 용서대립담과 이현운-경병희-경태사간의 용서대립담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사건이 <완월>에서도 등장한다. <완월>의 정인광-장현-장성완간의 용서대립담은 <옥원>의 소세경-이원외-이현영간의 용서대립담과 흡사하며, <완월>의 장세린-정성염-정염간의 용서대립담은 <옥원>의 이현운-경병희-경태사간의 용서대립담과 흡사하다.

먼저 <옥원>의 소세경-이원외-이현영간의 용서대립담과 <완월>의 정인광-장현-장성완 간의 용서대립담을 비교해 보면,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여주인공의 부친은 자신의 딸과 남주인공과의 혼약을 파기하고 權奸에게 빌붙어 남주인공 가문을 해치려고까지 하다가 이후 남주인공 가문이 다시 복귀하자 비굴한 술책으로 사위의 용서를 받으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물론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점 또한 흡사하다. 이러한 용서대립담은 정치적 갈등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는데, 대하소설로서는 흔치 않게 남주인공 가문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남주인공의 流離 모티브가

10)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전 12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1995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료는 교합본이긴 하지만, 선행연구(정병설, 앞글(1997b), 12-16면)에서 소설연구의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하 '완월'이라 약칭한다.

11) 21권 21책의 서울대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필사본 고전소설총서』 27-30, 아세아 문화사, 1980)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옥원'이라 약칭한다.

12) 하나의 작품에는 핵심이 되는 사건과 그 주변의 자잘한 사건들이 존재한다. 이를 핵사건(kernel)과 주변사건(satellite)이라고 한다. (S. 채트먼, 『이야기-사건적 요소들』,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1, 69-72면 참조)

등장한다는 점 또한 흡사하다.

대응되는 주요 인물유형 또한 매우 흡사하다. 온갖 비굴한 작태를 일삼으며 趨勢利慾하는, 여주인공의 부친이자 남주인공의 장인으로는 <옥원>의 이원외와 <완월>의 장현이, 자기 집안을 배신한 장인을 장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주인공으로는 <옥원>의 소세경과 <완월>의 정인광이, 못난 부친이긴 하지만 부친을 부친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남편과 갈등하는 여주인공으로는 <옥원>의 이현영과 <완월>의 장성완이, 아들과 사돈의 갈등을 중재하고 불쌍한 며느리를 보듬어주는 남주인공의 부친으로는 <옥원>의 소송과 <완월>의 정잠(정삼이,¹³⁾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암하고 경박한, 여주인공의 모친이자 남주인공의 장모로는 <옥원>의 공씨와 <완월>의 박씨가 각각 대응된다.

다음으로 <옥원>의 이현윤-경병화-경태사간의 용서대립담과 <완월>의 장세린-정성염-정염간의 용서대립담의 유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옥원>의 경태사와 <완월>의 정염은 각각의 작품에서 소인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이원외/장현을 가장 경멸하는 인물로 나온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자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이현윤/장세린은 자신의 부친을 경멸하는 장인과 마찰을 겪게 된다.¹⁴ 이처럼 두 작품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아 있다. <옥원>에서의 핵심적인 두 사건이 모두 <완월>에서 흡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재적 측면에서도 두 작품은 매우 흡사한

13) <완월>에서 정잠은 정인광의 伯父이긴 하지만 정인광의 부친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親父인 정삼 못지 않게 정인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광이 장인인 장현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도 정잠의 훈계에 의해서일 정도로, 정잠은 정인광의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삼은 처사로만 지내기에 벼슬살이의 절곡을 겪지 않는다. <옥원>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되는 인물은 정인광의 백부인 정잠이다. 따라서 정인광의 부친격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친부인 정삼과 아울러 백부인 정잠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오히려 정잠이 <옥원>의 소송에 더 부합한다 할 수 있다.

14) 물론 <옥원>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지만 <완월>에서는 주변사건으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또 남녀간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두 사건은 매우 흡사하다.

부분들이 많다. 女裝한 사위에게 淫心을 품다가 봉변당하는 장인의 모습, 꿈에 先親에게 매를 맞고 중병을 앓은 뒤 장인이 개과하는 장면, 先妣의 제삿날 昏絶을 하는 등의 남주인공의 지극한 효심, 등창을 앓는 장면과 破腫 장면, 사위에게 절까지 하는 등의 장인의 醜態, 여주인공의 쌍둥이 출산 장면, 남주인공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맨발로 피나도록 달려가는 장면 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두 작품은 매우 酷似하다.

3. 유사한 소재 및 장면의 상이한 활용

두 작품은 매우 닮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소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주인공 가문의 대외적인 위상 및 정치적 浮沈의 양상 즉 정치적 갈등양상과 관련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치적 갈등양상과 관련하여 두 작품에서 유사한 소재 및 장면이 상이하게 활용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3.1. 시대적 배경설정

<옥원>과 <완월>은 모두 간신이 득세하고 충신이 위기를 겪는 혼란기를 맞다가 다시 간신이 물러나고 충신이 복귀하여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옥원>에서는 宋 神宗朝를, <완월>에서는 明 英宗朝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옥원>에서는 舊法黨에 속하는 남주인공 가문이 王安石, 呂惠卿 등의 新法黨에 밀려 위기에 처했다가 신법당의 폐해가 밝혀지면서 복귀하는 데, 복귀 후에도 신법당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완월>에서는 反親征派인 남주인공 가문이 영종의 親征을 부추기는 親征派인 太監 王振의 悖政을 상소하다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후 영종이 也先(마선 : 오이라이트의 예센)에게 붙들려 있는 동안 등극한 景帝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⁵⁾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만 영종의 복위로 영화를 되찾는 양

상이 펼쳐진다.

3.2. 주요가문간의 관계

<옥원>과 <완월> 모두 여주인공 가문에서 남주인공 가문을 배신하지만 남주인공 가문의 용서로 화합하는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그런데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집안이 여주인공 집안보다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모로 열세에 처하면서 여주인공 가문의 은덕을 입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이 여주인공 가문보다 훨씬 더 세력 있는 집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여주인공 가문에 은덕을 베푸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조부가 장헌태후에 관한 일로 讒訴를 입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주인공의 조부인 문정공 李迪이 구해내고, 남주인공의 부친 소송을 이적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가르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완월>에서는 여주인공의 조부모인 장합 부부가 糶乞하는 것을 남주인공의 조부인 정한이 거두어 厚待하다가 그들이 죽자 그들의 아들인 장헌을 길러 입신시킨다.

3.3. 남주인공의 流離

<옥원>과 <완월> 모두 남주인공이 집안의 정치적 위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유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이 반대파를 공격하다 귀양가자마자 반대파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떠나 떠돌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은 繼伯母 소교완이 보낸 도적떼들로 인해 포류하게 된다. 물론 정인광 또한 이후에는 집안의 대외적 위기로 인해 유리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근본 계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15) 남주인공 가문에서 경태가 등극하기 전 경왕이었을 때, 그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3.4. 장인의 夜行

<옥원>과 <완월> 모두 소인형 장인의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는 夜行 장면이 등장한다. 비록 위기에 처한 사돈을 낮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남 몰래 밤에 찾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야행 장면이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부친의 귀양과 관련하여,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숙부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나온다. <옥원>에서 이원외는 남주인공의 부친인 소송이 귀양가는 도중 머물게 된 객점에 밤늦게 미복으로 찾아간다. 이런 비루한 행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만, 소송만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환대한다.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 정잠이 귀양을 가지 않기에 이와 흡사한 부분이 남주인공의 숙부 정흠의 장례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영종의 친정을 반대하다 賜死된 정흠의 장례식에 장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越牆하여 간다. 이때 하인배로부터 도둑으로 몰리면서 매를 맞는 등의 조롱을 받게 되지만, 정잠은 장헌의 진심을 알아주고 환대한다.

4. 정치적 갈등양상의 차이

앞장에서 정치적 갈등의 형상화와 관련하여 두 작품에서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미소한 차이들이 쌓여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한다면, 두 작품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하나하나 규합하는 가운데 두 작품에서의 정치적 갈등양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남주인공의 조부代, 남주인공의 부친代, 남주인공代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1. 남주인공의 조부代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남주인공의 조부대는 그 가문의 기반 설정으로

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본격적인 서사 진행은 남주인공의 부친대에서부터 펼쳐지고, 조부대에서의 서사의 성격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간략히 요약 서술하는 가운데 그 가문의 기반을 설명해주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옥원>과 <완월> 두 작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주인공의 조부대는 주로 과거의 사건으로서 간략히 처리되는 가운데 남주인공 가문의 배경 설정의 의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이러한 조부대의 가문의 대외적 위상이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옥원>에서 남주인공의 조부¹⁶⁾는 章獻太后에게 죄를 지어 축지에 貶謫당하고 이후 나라에서 벼슬을 주려 하나 사양한 채 隱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¹⁷⁾ 이에 반해 <완월>에서 남주인공의 조부 정한은 황태부 수각노 진국공으로, 임금인 “일작 그 일흠을 부르지 아나 정상뵈라 헐시고 조회에 깔 초고 신 신고 단니개 헐시며 티자로 정부에 왕니헐여 학형을 본밧게” 할 정도로 “신두중망과 위덕현형이 히너을 드레”¹⁸⁾이다.

물론 <완월>의 남주인공 가문에서도 정치적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한의 一弟 정선이 漢王의 모함을 입어 冤死를 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 곧 한왕은 죽고 至冤을 伸雪한다. 즉 <옥원>과 <완월> 모두 남주인공의 조부대에서 정치적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오지만,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조부가 정치적 위기를 맞아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소외된 채 寒土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조부가 아닌 조부의 아우가 賜死당하는 위기를 겪지만 그럼에도 남주인공 가문은 계속해서 건재하고 명망이 드높다.

또한 <옥원>에서의 소세경과 이현영의 단출한 혼약과는 달리,¹⁹⁾ <완월>

16)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조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宋史> 列傳 53권을 참고했을 때 남주인공의 조부에 해당하는 인물은 蘇紳이다.

17) 선공이 진중 말년의 득죄어장현태후헐여 축지의 편히니 인묘간의 은백홀시 드여 통용 헐시터 즉 다시 도의 나디 아니헐고 은경으로 □□의 헐도헐메 미산의 길디를 점복헐엇더라. (<옥원> 1권, 34면)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조부가 왜 장현태후에게 죄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8) <완월> 1권-1권:30면(전자는 원작품의 권수이고, 후자는 김진세 교합본(앞책)의 권수와 면수이다. 이하 동일하다.)

>에서는 정한의 생일날, 정잠의 아들인 정인성과 이빈의 딸 이자염, 정잠의 딸 정명염과 조현의 아들인 조세창, 정잠의 딸 정월염과 이빈의 아들인 이창린(장창린)²⁰, 정삼의 아들인 정인광과 장현의 딸 장성완 등 많은 자손들이 혼약을 하게 되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완월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盟約은 상층의 가문간에 姻親 관계로 맺어지는 양상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원>에서 남주인공 집안이 여주인공 집안보다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모로 열세에 처하면서 여주인공 가문의 은덕을 입는 집안인데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이 여주인공 가문보다 훨씬 더 세력 있는 집안으로 등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가문의 형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의 기반이 허약하여 여주인공 가문에 신세를 지게 되나,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의 기반이 탄탄하여 여주인공 가문에 은혜를 베푸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의 조부가 단지 여주인공의 부친을 거두어 기를 뿐만 아니라 自費로 救貧館을 차려 무수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풍부한 資産을 지니고 있으며, 그 門下生이 백여 인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문 칠십자”²²에 비견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문의 차이로 말미암아 남주인공 조부의 죽음 또한 상당히 대조적이다. <옥원>에서 남주인공의 조부가 은거한 채 쓸쓸히 죽어가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정한이 죽자 천자가 슬퍼하여 “옥테에 드하시던 두어 가지 옷술 보너스 선성의 몸에 갖가이 쓰라 하시교”²³ “거구의 당여 흐미 국장 버금”²⁴일 정도이다.

19) 소세경과 이현영의 혼인은 소세경의 조부대에서가 아니라 소세경의 부친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완월>에서의 혼약과 비교하기 위해 남주인공의 조부대에 넣어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20) 후에 이빈의 아들이 아니라 장현의 아들이 밝혀진다.

21) 이빈, 장현 등은 정한의 제자이며, 조현은 이빈과 사돈지간으로 다시 정한과 사돈이 된다. 門生관계에 의한 學緣, 혼인을 중심으로 한 血緣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층가문간에 맺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2) <완월> 1권-1권:35-6면.

23) <완월> 3권-1권:107면.

24) <완월> 3권-1권:111면.

이처럼 <옥원>과 <완월>은 그 가문의 기반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옥원>에서 남주인공 가문은 처음부터 정권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학맥에서도 중심을 차지하지 못 하며, 인척 관계 또한 미미한 가운데 주변부로 밀려난 가문으로 그려지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정치권의 實勢일 뿐만 아니라, 학맥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인척 관계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는 권력층의 핵심 가문으로 그려져 있다.

4.2. 남주인공의 부친代

정치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남주인공의 부친代에서도 남주인공의 조부代와 마찬가지로 <옥원>과 <완월>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옥원>에서는 그 조부代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 한 명뿐으로 孤孤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이 비록 명망을 떨치긴 하나 신법당의 폐해를 直諫하다가 귀양가게 된다. 평소부터 왕안석, 여혜경 등의 신법당이 집권하여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통탄해오던 소송은, 신법당에서 李定 등을 천거하자 그 불가함과 더불어 신법의 폐해에 대해 상소하다 귀양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남주인공 가문은 가족이 離散하는 등의 전폭적인 몰락을 겪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代에 이르면 정잠, 정삼, 정흠, 정겸, 정염 등으로 가문구성원이 확대되어 번성한 가문을 이루게 된다.²⁵⁾ 물론 정흠이 영종의 친정을 부추기는 權奸 왕진의 悖行을 직간하다 冤死당하는 가운데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더욱이 정흠은 한왕의 모함에 의해 원사한 정선의 아들이기에 그 위기감은 자못 심각하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정흠 이외에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정흠 또한 賜死당하나 곧 그녀의 딸 정기염의 泣血諫言에 의해 伸冤된다. 그리고 정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교롭게도 정잠, 정삼은 부친상으로 인해

25) 물론 정잠, 정삼, 정흠, 정겸, 정염 모두 형제지간은 아니다. 정잠과 정삼은 형제, 정흠과 정겸도 형제이지만, 정잠과 정흠은 사촌형제간이고 정잠과 정염은 육촌형제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술밥을 먹으며 형제처럼 밀접하게 지내고 있기에 형제지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이들의 자식代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향에 내려가 있었고, 정겸, 정염 등은 강서와 남월을 按撫하러 간 상태이기에 정흠의 일에 연류되지도 않는다. 그녀의 딸 정기염은 그 효성으로 표창을 받게 되고, 정흠 이외에 정부의 구성원들도 별 탈 없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즉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이 獨子로서 남주인공 부친의 정치적 위기가 가문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가문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위기로 끝나고 남주인공 가문 전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남주인공 부친만을 대비했을 때,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부친인 소송이 귀양가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 정잡은 귀양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옥원>에서는 소송의 귀양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하는 가운데 소송의 유일한 가족이자 아들인 소세경은 거처할 곳도 없이 떠돌며 도적떼 무리에 뒤섞이기도 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정흠이 사사되어서도 별반 타격을 입지 않고, 이후 정씨 가문을 좋게 보지 않는 경제가 등극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꼈을 때도 남주인공의 조부 정한이 마련해 놓은 은신처로 가서 집안 식구들이 편히 지내게 된다. 조부 정한이 생시에 “천티산 은천동”의 “요디 선경”에 “벽한정”이라는 은신처를 마련해 놓고 자신의 庶弟 정천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게 했던 것이다.²⁶⁾ 그곳에서 가족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더욱이 <옥원>에서는 소송이 귀양가자 곧바로 그 반대파인 여혜경 일파가 공공연하게 소세경을 잡아들이는 방을 부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경제가 정씨 가문의 세력이 만만치 않고 드러난 죄과가 없기에 몰래 심복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 하는 양상 또한 <옥원>과 <완월>에서 각각의 가문의 위치가 다름을 잘 보여 준다.

<완월>에서 <옥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주인공이 流離하는 동일한 모티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또한 이러한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 흡사한 ‘분리 모티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옥원>에서는 부친의 정치적 몰락이, <완월>

26) <완월>11권-1권:356면.

에서는 계백모의 모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완월>에서도 이후 정씨 가문을 절오하는 경제가 등극함에 위기를 겪고 이 또한 남주인공 정인광이 유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큰 어머니 소교완의 모해로 설정되어 있다. 소교완의 모해가 없었다면 정인광 또한 가족들과 함께 천태산의 은신처에서 安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인광이 유리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계백모의 모해로 설정되어 있는 점 또한 <완월>에서의 남주인공 가문은 <옥원>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따른 전폭적인 몰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적 하강 국면 즉 정치적 위기의 국면에서,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형상화하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의 ‘안전한 避身’을 주로 그려내고 있다. <옥원>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가문의 기반이 허약하기에 남주인공 부친의 정치적 몰락이 집안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이미 남주인공의 조부대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가문의 탄탄한 기반에 의해 정치적 위기를 겪어도 안전하게 피신함으로써 가문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적 상승 국면 즉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복귀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옥원>의 소송은 비록 해배되어 복귀하지만, 자신의 당파인 구법당원들이 제대로 신원되지 않았기에 벼슬을 사양한다.²⁷⁾ 그리하여 낙향하여 미산의 古宅에 갔을 때 “덩던의 황취 어즈럽고 회회하여 물식이 즈뭇 처량흔디라 감창흔물 이기디 못”²⁸⁾한다. 그곳에서 아들 소세경이 고기잡고 며느리가 베를 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나가며 빈궁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당파 사람들이 은사를 입지 않거나 등용되지 않고 있기에 벼슬을 사양하며 신법당과 대립하는 등 순탄치 않은 생활을 지속한다. 특히 그가 벼슬을 사양하면서 “성상이 밋양 스마광을 불너 널위

27) 옛 벼슬노 형공하라 하시니 공이 천은을 감격하여 눈물을 느리오고 상표청죄하며 벼슬을 사양하여 동뉴 죄루홀 닥신이 다 불운흔거늘 홀노 이수틀 감승치 못흐물 고스브도하니 상이 그 념우와 괴절을 아롭다이 녀이시나 일변 괴식흐미 되어 은명이 불츠의 밋디 못흐더라(<옥원> 2권, 126면)

28) <옥원> 2권, 261면.

를 근절이 험사 및 니르매 그 말슴을 쓰지 아니시니 이는 폐하의 말슴과 일이 상합지 아니시미라 텃하의 현시 비록 이시나 폐하의 용현홀 뜻이 업스시를 붉이 알고 구원하시는 성교를 밋지 아니미니이다.”²⁹⁾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의 黨首인 사마광을 重用하지 않는 천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소송이 복귀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법당이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구법당이 實勢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소송이 귀양갔을 때 여혜경의 일파인 조맹의 독수를 피해 화신진인이 사는 곳으로 피신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 신법당에서는 소송이 謫所에서 벗어나 산중 妖道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려 했다고 모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비록 그 아들 소세경이 자신의 부친은 신법당의 독수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했을 뿐이라며 강력하게 변호함으로써 소송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하지만, 이 장면 또한 그가 해배되어 돌아온 뒤에도 소송에 대한 반대당과의 비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⁰⁾ 비록 작품의 말미에서 소송은 개봉부윤에 임명되어 복귀하긴 하지만,³¹⁾ 이는 그 아들 소세경이 出仕하고 난 이후의 일로, 실질상 남주인공 부친대에서는 해배된 이후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 시골에서 寒土로 지내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원>의 정잡은 <옥원>의 소송이 단순히 유배 갔다가 은사를 입어 복귀하는 것과는 달리, 마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종 대신 볼모로 잡히고 영종을 還國하게 하는 등의 험격한 공로를 통해 이전보다도 더욱 번성한 가문으로 거듭난다. 또한 이미 영종의 친정을 주장했던 왕진 등의 친정파는 모두 죽임을 당한 상태이고, 정씨 가문을 질오하던 경제도 폐위되었기에 정잡은 완전한 복귀를 이룬 가운데 <옥원>의 소송처럼 반대당파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반대당과 대립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29) <옥원> 8권, 305면.

30) 물론 천자가 소세경 부자의 상소를 좇아 여혜경 일당을 죄주고 구법당원들을 반 넘게 해 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시 신법당인 채학 등이 중용됨으로써 구법당은 실권을 차지하지는 못 한다.

31) 소송이 개봉부윤에 임명되는 것은 소세경이 혼란스런 이주 지방을 잘 다스리고 난 후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소세경을 中書舍人知制誥에 제수하고 난 뒤의 일이다. 즉 아들의 공적으로 인해 개봉부윤이 되는 것이다.

당시의 정국과 관련하여 천자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장면은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다. 황자 진왕이 玉指를 받들어 서태부인에게 정잠을 태교한 공을 치하하러 來臨하고, 천자가 태자에게 “정경[정잠]은 덕행과 충열이 세터의 회한홀 뿐 아니라 너의 은인이니 범연홀 신하로 아지 말나 겸하여 동궁 스부의 거하고 님이 경으로 정경의게 의탁호느니 즘금 이후로 태부로써 스부를 겸하여 알오플 님으로 달니 말나”³²⁾고 하교할 정도로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즉 <옥원>에서는 정치적 복귀의 국면에서도 ‘불안전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완월>에서는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3. 남주인공代

남주인공대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영화로운 시기로 설정된다. 이러한 남주인공대에서도 <옥원>과 <완월>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옥원> 또한 남주인공대에 이르면 혁혁한 가문을 형성하게 되나, 남주인공대에서도 소세경 한 명 뿐으로, 그 부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소세경은 영웅소설의 남주인공과 흡사하게 소송이 뒤늦게 간신히 얻은 晩得子로서, 소송은 항시 소세경에게 명철보신하고 後嗣가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이와는 달리 <완월>에서는 남주인공대에 이르면 정인성, 정인광, 정인중, 정인웅, 정인경, 정인유, 정인의, 정인명, 정인필, 정인홍, 정명염, 정월염, 정성염 등의 많은 인물들이 존재함으로써 書室에 누운 사람들이 “고기 옛근 닻”³³⁾ 빼곡할 정도이다.

부인의 경우에도 <옥원>의 소세경은 이현영 한 명뿐으로 단출한데 반해, <완월>의 정인광 등은 장성완, 소채강 등 두 명 이상의 아내가 있다.³⁴⁾

32) <완월> 144권-10권:196면.

33) <완월> 40권-3권:305면.

34) 물론 <옥원>의 소세경 가문과 <완월>의 정인광 가문은 모두 嚴正한 가문으로 자식에게 一妻만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완월>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정인광은 일처 이상을 두게 된다. <완월>에서와 같이, 비록 집안에서는 일처만을 허용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多妻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도이다. 이는 가문의 도덕적 기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문의 번영을 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 소세경이 연거푸 세 번씩이나 쌍둥이를 낳는 것 또한 이런 고고한 가문의 출신인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완월>과 <옥원> 모두 남주인공이 쌍둥이를 낳는 기이한 출생 장면이 나오는 점에서는 흡사하나, <완월>의 정인광의 경우에는 쌍둥이를 낳는 장면이 한번으로 그치는 데 반해, 소세경은 쌍둥이를 낳는 장면이 연거푸 세 번씩이나 나온다. 이는 絶孫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가문의 번성에 대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소세경의 아들대인 소봉희에 이르면 獨子인 소세경과는 달리 향렬이 번성하고 여러 가문들과 인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고고한 가문에서 탈피하긴 하지만, <완월>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 <완월>에서 정인성의 아들인 정몽창과 문창공주의 혼인식 풍경을 보면, 내당에 있는 오십 여명의 宰列宰相과 公侯伯爵과 新進名士가 모두 골육친적일 정도로 정씨 가문은 인친 관계를 바탕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월엽이 “년혼의 요두증이 나고 치산병이 발호오니”³⁵⁾라고 말할 정도로, 정씨 가문은 連婚에 의해 타 가문과 겹겹이 맺어지면서 큰 婚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옥원>에서는 소세경의 출사로 인해 비로소 집안이 영화를 누리는 양상이 전개된다. 비록 소송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개봉부윤에 임명되긴 하지만 이는 소세경이 이미 관직으로 진출한 뒤의 일로 소송은 즐곳 벼슬하지 않은 채 식구 모두가 고향에서 빈천한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소세경 가문의 빈한함은 소세경이 장원급제하고 이주를 평정한 뒤 영광스럽게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그 빼어난 모습을 보고 “이 엇디 성도 저재여 발지던 쇼동이며 미산디하(眉山之下)의 시웅전취(詩吟田夫)리오”³⁶⁾라며 감탄해 마지않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전에 멸시

러한 양상은 상층 별열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조광국(「<옥수기>의 별열적 성향」, 『한국문화』 30, 한국문화연구소, 2002, 89면)은 별열의 조건 가운데 “별열 구성원 중 누군가는 다첩 혹은 축첩의 형태를 지닌다”는 항목을 넣고 있다. 그런데 <옥원>에서는 독자인 소세경이 한명의 아내만을 두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손에 대한 위기위식을 형상화하기 위한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35) <완월> 175권-12권:208면.

36) <옥원> 16권, 45면.

하던 사람들도 다 소세경 부자를 치켜세우는 모습을 통해 소동파의 말대로 공한 선비(窮措大)가 급제한 소식이 천하의 제일 쾌사라고 서술하고 있다.³⁷⁾

그런데 소세경이 출사하여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신법당인 채확 등의 무리가 집권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록 여혜경 등은 실각하였으나 여전히 채확 등의 신법당의 무리가 집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세경이 채확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고 거듭 사직을 청한다. 여기에서 그 부친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세경 또한 반대당의 중용으로 인해 벼슬을 사양하기를 청하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소세경이 쓴 사직 상소문이 18면에 걸쳐 서술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당인 신법당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록 채확 등은 탄핵되고 소세경은 이주통판으로 가게 되지만, 이주 지방은 疫病, 海獸, 逆盜의 “삼위스(三危事)”³⁸⁾가 있는 땅이기에 채확 등의 무리들은 소세경이 죽을 땅에 갔다고 좋아하며 자득하고, 名流들은 이를 차석해하게 된다. 물론 소세경은 이 삼위사를 다 해결함으로써 영화롭게 복귀하긴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장면은 남주인공 소세경이 계속해서 당파간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겪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주 통판으로 가는 것이 소세경의 自願이 아닌 천자의 命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탄핵된 채확이 이후 다시 등용되는 점 등은 이주로 가는 일이 일종의 左遷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세경이 이주 통판으로 떠날 때에 ‘이장주’라는 여인과 관련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장주는, 신법당의 일원으로서 소송과 여러 번 대립한 적이 있으며,³⁹⁾ 상서좌승으로서 “권등허미 거묘를 휘요”⁴⁰⁾한 이정

37) “혹 석일의 교양던 재 오늘날 더욱 험견키의 밋디 못홀 듯 혹 당년의 멸시홀 손이 이제 추목점쇼홀을 겨를치 못하니 공의 부즈의 말이 입의 나 짜희 찌러지 ”디 못호여 주어가며 아당호니 동파의 니룬 달관석상의 공조계[‘대’의 오기인 듯] 급데호 쇼식이 천하의 제일 쾌스라 호미 엇디 명답이 아니리오”(〈옥원〉 16권, 57-58면)

38) 이주는 “너환이 대처호여 십가구스호”고 “희쉬 이셔 비룡비어호고 비셔비표호”며, “대되 산둥의 둔취호여 즈로 범군전투호”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옥원〉 13권, 281-282면)

39) 소송은 이정이 중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다 귀양갔으며, 이정은 소송이 해배되어 돌아오자 소송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의 딸로, 소세경을 사모하여 男裝하고 쫓아가 자신의 思慕之心을 고백하는 인물이다. 이장주는 이주 통판으로 부임하는 소세경을 쫓아가기 전, 먼저 천자를 통해 소세경과의 혼사를 이루고자 한다. 이에 천자는 이주 통판으로 떠나는 소세경에게 賜婚하게 되는데, 소세경은 이에 대해 淫風敗俗하는 계집을 엄하게 다스려야 함을 고하는 한편, 자신이 죄가 있으면 벌을 주거나 귀양 보낼 것이 마땅하거늘 이러한 계집을 임지로 떠나는 신하에게 사급하여 政事의 어지러운 근본을 삼는 일은 신하를 대접하는 예가 아니며 자신을 犬馬로 보고 음란한 일로 욕하는 것이라면서 노여워한다.⁴¹⁾ 이에 御弟인 형왕이 와서 천자가 깊이 自悔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그 노여움을 풀게 한다. 소세경의 이러한 행위는 “좌각이 경희호여 혹 이성실테호여 촉범 권위호를 니르고 위호여 위티이 너”⁴²⁾길 정도로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여타의 작품에서도 사혼 모티브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일 뿐, <옥원>에서처럼 이로 말미암아 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못을 언급하고 천자가 이를 뉘우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필 소세경을 사모하여 쫓아오게 된 이장주가 그 부친이 소세경 가문과 반대파인 인물로 설정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장주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순전히 이장주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반대파이자 실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정에 대한 비난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 역시 실권을 차지하지 못한 체 집권

40) <옥원> 12권, 267면.

41) 일노 후로 주상이 신을 견마로 보시물 씨듯과라 (...) 성상이 엇딘 고로 이런 음란호 일노 욱호시리오. 쇼신이 죄 잇거든 당"이 유스의 논닐호여 관형의 두샤도 가호고 회의에 귀향 보니샤도 가하니 엇디 여츠 비의호 일노 신하를 펴박호여 죽을 짜히 두시리오 호물며 왕 명이 지축호사 일군의 위러를 진당호라 호시니 부탁이 적은 곳의 명에 호나 소임이 차대호니 성상이 밀보틀 주시매 맛당이 계지준식호고 녀즈지즈호라 호시리니 성식연회로 궁자호여 방면가스지인을 주어 정스의 황난호 근대를 삼으시니 풍화는 네의에 창호고 스유는 국당의 종이니 남녀가퀴지시 엇디호관터 성세의 음풍패속호는 거집을 죄주어 늘닐을 경히 아니시고 과당호여 녀리의 들니시리오 이 실노 주상의 도지 진실호실던대 내 맛당이 금문의 나아가 유확의 터디어도 7초 실택호시를 간호고 (...) 면전의셔 음너를 주호여 폐인의 권형호는 길을 막고 성상귀 주달호여 손무의 강비를 주호과 원앙의 신부인 절제호를 효축호리라. 군"신신은 주신지네야라. 내 비록 미명호나 비례의 도셔를 밧디 아니리니 내 땅녕도이 즈존호미 아니라 주상이 진신 디접호시는 네의 아니시미라.<옥원> 13권, 267-287면)

42) <옥원> 13권, 288면.

세력인 반대파와 대립하는 가운데 느끼는 불안한 의식과 맞물려 할 수 있다.

<완월>에서의 남주인공 정인광은 이와는 달리 이미 그 부친이 혁혁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사를 한다. 그것도 천자가 자신을 북지에서 구해준 남주인공의 부친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히 과거를 열어 그 자식들을 등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인광 등은 정치적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대내외적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며 승승장구한다. 따라서 <옥원>에서의 소세경의 출사가 가문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명제라면, <완월>에서의 정인광의 출사는 단지 가문의 영화를 덧붙일 따름이다.

또한 <완월>에서도 <옥원>의 이장주와 흡사하게 出征한 남주인공⁴³⁾을 사모하여 남장하고 좇아오는 석순영, 만초란 등의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주인공을 좇는 것일 뿐 사훈과는 무관하다. 또 그들의 부친이 남주인공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물도 아니다. 따라서 사적인 차원에서의 이들 여성들에 대한 남주인공의 훈계가 있을 뿐이다. 이는 단지 남주인공의 뛰어난 풍모와 단정한 인품을 드러내는 화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주인공을 사모하여 남장하고 좇아오는 여성에 관한 동일한 모티브가 동시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원>에서는 그것이 반대당파와 임금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차이인 것이다.

물론 <완월>에서도 남주인공대에서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잡의 막내아들이자 정흠의 양아들인 정인웅 등이 왕진의 餘黨이자 妖道인 진경 등에 의해 역모죄로 참소되어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작품의 끝부분인 179권에 나온다. 정씨 가문의 傍系라 할 수 있는 정선-정흠-정인웅이 삼대에 걸쳐 위기를 겪는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위기감을 자아낸다. 정인웅이 위

43) 정인광의 경우에는 구혼하는 여성을 물리치는 모티브가 나오지 않고 쌍둥이 형인 정인성의 경우에만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 정인성은 <완월>에서 정인광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남주인공이다. 비록 소세경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인물은 아니나 남주인공이 구혼하는 여성을 물리치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기에 처하게 되는 것 또한 그 부친 정흠이 원사한 일에 불만을 갖고 모역을 피했다는 누명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정잠 등이 이들 요도를 잡음으로써 위기는 극복되고 이후 천자는 정씨 가문을 더욱 우대하게 된다. 더욱이 정인웅이 역모죄로 拏獄된 동안에도, 천자는 정잠을 하룻밤 대궐에서 머물게 하여 “군신이 산슈득의흐미 엄즈롱이 광무의 비의 불 언즈미 비치 못”⁴⁴⁾할 정도로 정씨가문을 극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인웅에 대한 대목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반전은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안정 후의 위기’에 해당하는 서사장치이다.⁴⁵⁾ 따라서 <완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없다. 설혹 이 장면을 주목한다 하더라도 간인에 의한 일방적인 참소와 이러한 누명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신원이라는 구도는, <옥원>에서 소세경이 반대파가 중용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벼슬하기를 그만두려 하는 장면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옥원>의 소세경은 남주인공으로서는 이례적으로 短命할 것이라는 불길한 언급마저 자주 눈에 띈다.⁴⁶⁾ “국운(國運)이 점쇠(漸衰)하니 군지(君子) 오라디 아닐디라 군평[소세경의 字]의 대략(大略)을 었디 기리 썩리오”⁴⁷⁾라는, 소세경의 스승이자 구법당의 당수인 司馬光의 말에서 볼 수 있듯, 반대당과의 대립 속에서 남주인공이 그 뜻을 펼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옥원>은 한미하고 고고한 가문이 정치관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위기를 느끼는 불안한 의식을 심도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44) <완월> 179권-12권:289면.

45) 임치균(「연작형 삼대륙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31-132면)은 삼대륙계 소설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남을 논한 바 있고, 송성욱(「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 문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36-139면)은 대단원에서의 이러한 작은 반전은 삼대륙계 소설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하소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서사적 특징임을 고찰한 바 있다.

46) 사마광이 “군평[소세경의 字]의 괴량이 비록 침완하고 성되 진동하니 상피 발월하고 너모 청정하여 화미하고 슈려하니 당원한 재 아니라”(〈옥원〉 8권, 238면)라고 말하는 대목, 태후가 천자에게 “그러시 너모 크고 썩 맞디 아니니 가성[賈誼]의 외 쓰디 이디 못흔과 주유의 당슈흔지 못흔 탄이 업슬런가”(〈옥원〉 12권, 256면)라고 말하는 대목 등을 통해 이를 볼 수 있다.

47) <옥원> 8권, 235면.

물론 <완월>에서도 단명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정인광이 아닌, 그 사촌동생 정인응이 단명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며, 이것은 정치적 위기와 관련한 불안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 모친 소교완의 죄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인 정인응이 요절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올 뿐이며, 소교완의 개과로 인해 이러한 일은 곧 해결된다.

즉 <옥원>에서는 남주인공대에서도 고고한 가문을 이루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불안한 모습이 자주 드러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방대한 가족을 이루면서 “출정 더당과 스직 동양지지는 거의 그 집의서 좇츠나”⁴⁸⁾게 되고, “서태부인 여년이 납박서일흐다 흐샤 오일의 소연(小宴)호고 일삭의 대연(大宴)호여 날을 즐기라 흐샤 스년스악(賜宴賜樂)을 종종 흐”⁴⁹⁾는 정도로 혁혁한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남주인공대에서의 양상 또한 남주인공의 부친대의 연장선상에서 <옥원>에서는 ‘불안정한 복귀’의 모습을, <완월>에서는 ‘완전한 복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두 작품의 존재층위

앞장에서 祖, 父, 子 三代에 걸쳐 <옥원>과 <완월>에서의 정치적 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작품은 남주인공 가문의 정치적 위기와 그에 따른 남주인공의 분리 모티브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 양상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옥원>에서 남주인공 가문은 삼대에 걸쳐 孤孤한 가문을 이루면서 實勢에서도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맥에서도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며 인척 관계 또한 미미한 가운데 주변부로 밀려난 가문으로 그려져 있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방대한 가족구성원을 바탕으로 학연과 혈연에 의해 큰 세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祖, 父, 子 삼대에 걸쳐 집권한 가문의 안정된 모

48) <완월> 72권-5권:340면.

49) <완월> 178권-12권:254면.

습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두 작품에서 남주인공 가문은 그 기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가문의 기반을 보여주는 조부대에서부터 <옥원>은 남주인공 가문이 혈연, 학연에 의해 별다른 세력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반해 <완월>에서는 혈연, 학연에 의한 거대 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이 대하소설로서는 특이하게 삼대에 걸쳐 독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대하소설 가운데 가장 방대한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문의 기반과 관련하여 남주인공 가문의 정치적 浮沈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옥원>에서는 정치적 하강 국면 즉 정치적 위기를 겪는 국면에서 남주인공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형상화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안전한 避身’을 주로 형상화한다. <옥원>에서 남주인공의 부친의 경우 잠시 벼슬길에 나오지만 이내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감으로써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비록 가문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사사되기도 하는 등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가문은 건재한 가운데 安存하게 된다. 그렇기에 <옥원>과는 달리, 남주인공 부친이 귀양가는 장면 대신 위기에 처한 임금을 보필하는 장면으로, 남주인공이 부친의 정치적 패배와 직결되어 유리하게 되는 상황 대신 가족구성원의 모해로 인해 유리하게 되는 상황으로, 남주인공 가족 전체가 離散하는 가운데 집안이 풍비박산하는 모습 대신 미리 마련해 놓은 은신처에서 가족들이 安存하는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옥원>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따른 완전한 몰락을 형상화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비록 정치적 위기를 겪는 장면이 자못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世家巨族으로서의 위치로 말미암아 가문의 전폭적인 몰락은 나타나지 않고 그 기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상승의 국면 즉 정치적 복귀의 국면에서도 <옥원>에서는 ‘불완전한 복귀’를 이루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완전한 복귀’를 이루고 있었다. 남주인공의 부친의 경우 해배되어 돌아와서도 實勢를 차지하지 못한 채 낙향하고, 남주인공대에 이르러서는 일정 정도의 영화를 누

리지만 집권한 세력들과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당쟁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주인공대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권의 핵심세력에 근접하는 모습이 그려지긴 하나, 그럼에도 정치권의 주변부에 속한 세력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의식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주류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서는 임금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이 임금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혁혁한 공로를 통해 복귀할 뿐만 아니라 복귀한 이후에는 반대당파로부터 전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남주인공대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더욱 번창한 가문을 이루게 됨으로써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볼 때, <옥원>은 한미하고 고고한 가문 즉 寒門 출신⁵⁰⁾의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주류에 속한 계층의 모습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면, <완월>은 <옥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쟁의 위기를 그려내면서도 정치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上層 閥閥⁵¹⁾의 혁혁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 작품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의 정치적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세기에는 당쟁이 고착됨에 따라서 정치적 敗退波가 생겨나고, 그 당시까지는 一起一戰하면서도 어쨌든 같은 지평 위에

50) 물론 소송이 처음에 벼슬에 올랐을 때는 대단한 명성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작품의 첫부분에서 잠시 언급이 나올 뿐이고, 귀양을 갔다 온 뒤에는 계속해서 한사로 지내게 된다. 따라서 소세경은 한문 출신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소세경 부친 소송 또한 그 부친이 폄적당해 은거한 상태에서 벼슬길에 나가기에 역시 한문 출신이라 할 수 있다.

51) 별열은 양반에서 분화된 최상급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관인을 배출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세습하는 家門을 말한다. 별열의 형태는 주로 閥閥貴族으로서 지칭되었는데,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아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지녔고 상당히 폐쇄적인 통혼권을 지니며, 이러한 것을 세습할 수 있고, 아울러 당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문벌의식을 자기고 있었던 귀족을 말한다. 특히 父, 祖, 曾祖 가운데 1인이 堂上官 이상의 官人일 때 그 가문을 별열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별열로는 노론 별열, 소론 별열, 남인 별열, 북인 별열, 勳武世家 별열 등이 있었다.(최장섭, 『조선후기별열연구』, 일조각, 1997, 1-204면 참조). 조광국(앞글, 88-89면)은 상층별열의 조건에 대해 세밀히 논한 바 있다.

서 정권쟁탈전을 벌이던 黨人貴族은 정치적 優勢派와 정치적 劣敗波로 양분된다.⁵²⁾ 또 조선후기의 붕당은 혈통과 학파가 당색의 계보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붕당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門生관계에 의한 學緣, 閥閥을 중심으로 한 血緣이었다.⁵³⁾ <옥원>에서는 학연과 혈연 관계에서 별다른 세력을 형성하지 못 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소외된 모습 정치적 열세파⁵⁴⁾의 모습을 그리는데 반해, <완월>은 학맥과 혼별에 의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정치적 우세파의 모습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원>과 <완월>은 모두 간신이 득세하고 충신이 위기를 겪는 혼란기를 맞다가 다시 간신이 물러나고 충신이 복귀하는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한 점에서 일치하면서도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른 것 또한 이러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옥원>의 배경이 되는 송 신종대에는 신법파와 구법세력 사이의 다툼은 신법세력이 전기간 동안 주도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후에도 元祐 연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법세력이 북송말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정계의 중심부를 차지했다.⁵⁵⁾

이와는 달리 <완월>에서는 당파간의 대립이 土木之變⁵⁶⁾, 奪門之變⁵⁷⁾ 등으로 일시에 해결되고 주인공 가문이 속한 당파가 명백한 승리를 거두게

52) 石井壽夫 著 · 홍순민 譯, 「후기 이조 당쟁사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이태진 편), 2003(개정판), 76면.

53) 최장섭, 앞책, 168면.

54) <옥원>의 경우 ‘열세파’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열세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열세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로 한다.

55) <옥원>에서 주로 형상화되는 시기인 신종대에는 신법당의 집권으로 구법당이 위기에 몰리다가 신법당의 폐해가 밝혀지면서 왕안석 등이 지방수령으로 편적되나 곧 복직되고 이후에도 구법당의 복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종 이후에도 어린 哲宗 대신 宣仁太后가 수렴청정할 때인 元祐 연간에는 신법당을 물리치고 구법당을 중용하지만 哲宗이 親政하자 신법당이 다시 등용되고, 철종 사후 皇太后 向氏가 집정할 때에는 신법당과 구법당의 절충을 모색하다가 徽宗代에는 다시 신법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양종국, 『송대사대부사 회연구』, 삼지원, 1996, 258-357면 참조 ; 제임스 류 著 · 이범학 譯,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15-145면 참조)

56) ‘토목지변’은 영종이 친정했다가 ‘土木’이라는 지방에서 마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참변을 말한다.

57) ‘탈문지변’은 마선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영종이 돌아와 경태를 내몰고 복위하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된다. 토목지변으로 말미암아 親征을 주장했던 왕진 등은 그 자리에서 마 선에게 죽임을 당하며 그 餘黨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모두 숙청당하게 되고, 이후 탈문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매우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인 于謙마저도 경태를 옹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등 그 처벌이 매우 엄격했다. 당파간의 분쟁이 매우 확실하게 판가름나는 시대였던 것이다.⁵⁸⁾

이처럼 <옥원>에서 송 신종 연간을 배경으로 구법당에 속한 인물을 남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당쟁의 위기를 겪은 정치적 열세파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반면 <완월>에서는 명 영종대를 배경으로 반친정파에 속한 인물을 남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정치적 주류를 차지하는 정치적 우세파의 모습을 형상화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두 작품에서 그려지는 소인형 인물의 차이 또한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소인형 인물은 쫓대가 없고 醜擧한 성격을 지닌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그들이 속한 가문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옥원>의 소인형 인물인 이원외는 명문거족 출신이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아침과 탐욕에 물들어 소인으로 전락하는 인물로 나온다. 당대의 명사인 이문정공이 그 아들 이원외가 노둔한 인물임에도 욕심을 내어 걸으로는 과도하게 책하며 안으로는 자애가 심하여 자신은 淸儉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절검치 못하였기에 이원외가 비뚤어지게 되고, 이문정공 문하의 家臣들이 기리는 詔事에 물들어 文識은 무너지고 탐욕에 물들게 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원외는 소세경 가문이 위기에 처하자 의리를 저버리고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그들을 배신하고는 신법당에 빌붙게 되는 것이다.⁵⁹⁾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소인형 인물 장헌이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부모가 비록 양반이나 생계를 이어나갈 수조차 없어 구걸

58) 김희영 편, 『명나라의 내우 외환』, 『이야기 중국사』, 청아출판사, 1987, 107-118면 참조.

59) 이원외뿐만 아니라 당대의 실권자인 왕안석의 아들인 왕방 또한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떠받들기에 의해 버릇없고 탐욕에 물든 인물로 전락해 가는 인물로 나온다. 그 버릇없기가 “아비 나로슬 잡고 입마초며”(〈옥원〉 3권, 308면), 그 부친이 혼계하면 “꼴홀 거드며 교성”(〈옥원〉 3권, 306면)으로 말할 정도이다.

하면서 떠도는 流民으로 등장한다. 다행히 정씨 가문에서 이들을 구해주고 그 아들인 장헌마저도 잘 길러 입신시켜 주지만, 장헌은 한미한 가문 출신이 지니는 소심함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게 된다. 그것이 곧 그를 소인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일찍 죽고 형제도 없는 孤露餘生으로 위기에 처하면 구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씨의 後嗣가 끊어지게 됨에 어쩔 수 없이 소인행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소인형 인물은 그 출신이 상반되게 설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들 소인형 장인은 남주인공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두 작품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남주인공 가문의 위치를 더욱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옥원>에서 소인형 인물을 당대의 명문거족 출신으로 설정한 것은, 그 대립항에 있는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권의 비주류에 속한 寒門 출신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완월>에서 <옥원>과는 대조적으로 한미한 가문 출신의 장헌을 소인형 인물로 설정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門閥貴族 출신인 남주인공 가문구성원의 대타적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 또한 <완월>이 누대거족의 명문가를 부각시켜 그리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옥원>과 <완월>은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의 측면에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서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로부터 두 작품은 그 가운데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론의 의지를 가지고 창작된 작품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선후관계를 밝힐 순 없지만, 두 작품 가운데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대응작’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⁶⁰⁾

나아가 두 작품은 대하소설로서는 특이하게 정치적 갈등양상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60) 송성욱(앞글, 187-221면)은 <옥원>과 흡사한 구조를 지니는 <창난호연록>이 <옥원>의 대응작임을 밝힌 바 있다. <옥원>과 <창난호연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정내적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작으로서의 의미를 밝혀냈다면, 본고에서는 정치적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옥원>과 <완월>간의 대응작의 면모를 고찰할 수 있었다.

는 정치적 갈등양상이 그다지 첨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인공 가문이 일시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로 權奸의 청혼을 거절한다거나 집안에서 쫓겨난 악인형 인물의 복수로 인해 야기된다. 즉 정치적 위기의 발단이 가정적인 문제 등 소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가정 내적 갈등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기될 수 있던 갖가지 문제들을 섬세하게 짚어내면서도,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은 주로 가정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하소설 가운데 <옥루몽>, <옥수기> 등에서도 신진세력과 권문세가의 대립양상,⁶¹⁾ 왕도와 패도에 관한 논란,⁶²⁾ 가문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 모순 및 국가적 위기 해소⁶³⁾와 같은 정치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요소들은 19세기 정치현실과도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양상이 구체적 현실성을 결여”한 채 “과편적인 에피소우드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김종철의 지적대로,⁶⁴⁾ 이 요소들이 이들 작품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옥수기>의 경우를 보아도 <완월>에서와 마찬가지로 토목지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완월>에서처럼 갈등의 핵심을 차지하고 못하고 주변적인 사건으로 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옥원>, <완월>은 정치적 갈등양상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세계는 “보편적인 세계”로서의 중국⁶⁵⁾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로서의 중국을 충실

61) 서대석, 「<옥루몽>의 갈등구조」, 『한국학논집』 1, 1973 (『군단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 출판부, 1985에 재수록)
62) 강상순, 「<옥루몽>에 나타난 남영로의 정치의식」, 『송암정교환박사회갑기념논총』, 창원대, 1995 ;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왕도패도 병용의 정치이념과 구원 양상」,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63) 조광국, 「<옥수기>의 벌벌적 성향-작품세계-향유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한국문화연구소, 2002.
64) 김종철, 「19C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이수봉 외), 경인문화사, 1992. 82면.
65) 김종철, 앞글, 83면. 이 논문에서 <옥수기>, <옥루몽>, <옥미당기> 등의 소설의 배경세계는 명·당이 아니라 송이어도 관계가 없는, 개별성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로서의 중국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곧 헤겔의 지속의 나라로서의 중국과 흡사한 것이

히 재현하고 있으며,⁶⁶⁾ 이는 곧 조선후기의 정치적 현실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옥원>, <완월>이 조선후기의 정치적 실상에 밀착되어 있음을 논의한 바 있듯,⁶⁷⁾ 상층 사대부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당쟁의 문제가 밀도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⁶⁸⁾

기실 대하소설이 창작되던 조선후기의 현실은 여타의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安存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시시각각으로 정세가 변하는 당쟁의 와중에서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상층 사대부들 또한 위기위식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웅소설에서나 볼 수 있던 기아 모티브는 더 이상 평민층 혹은 평민층으로 몰락한 양반층의 체험만이 아니라,⁶⁹⁾ 당파간의 분쟁에 휩싸여 언제 流竄할지 모르는 상층 사대부의 실제 현실과도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당쟁으로 가족이 전멸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등의 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당대 상황 속에서 絶孫에 대한 위기위식⁷⁰⁾ 또한 상층 사대부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옥원>은 삼대 독자를 통해 절손에 대한 위기위식과 더불어 가문의 전폭적인 몰락을 형상화하는 속에 이러한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완월>은 대하소설 가운데 가장 번성한 가문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삼대에 걸쳐 정치적 위기를 겪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록 남주인공 가문의 탄탄한 기반에 의해, 그리고 가문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방계 구성원의 위기를 통해 <완월>에서는 가문 전체가 이산하는 등의 전폭적인 몰락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해마다 사사된 정흠의 제삿날이

라 보았다.

66) <옥원>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점에 대해서는 이지하, 앞글 ; 지연숙, 앞글에서 논한 바 있다. <완월> 또한 명 영종대의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67) 이지하, 앞글 ; 정병설, 앞글(1997b) ; 정병설, 앞글(2000)

68) 물론 <옥원>, <완월> 이외에도 <창난호연록>, <양현문직절기> 등에서도 당쟁의 양상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69) 군담소설은 평민층 혹은 평민층과 흡사한 생활수준을 가진 몰락 양반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서대석, 「창작군담소설의 유형과 향유층 의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박일용, 「영웅소설의 작자층과 향유층 논의」,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범주』, 월인, 2003)

70) 그간 절손에 대한 위기위식은 대하소설(가문소설)보다는 주로 군담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논의되어졌다. (송성욱, 앞글(1990))

돌아오면 가족들 모두가 슬퍼하는 대목이 짙진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가장 번성한 가문일지라도 당쟁의 폐해로부터 피해갈 수 없던 시대 상황처럼, <완월>은 단지 상층별열의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편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까지 끌어안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타의 대하소설과는 달리 이 두 작품은 당대의 정치현실을 짙진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옥원>과 <완월>이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를 형상화해내는 미소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두 작품은 정치적 갈등양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위기를 겪는 양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지는 점,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남주인공이 유리하게 되는 점 등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흡사하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가문의 기반에서부터 두 작품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옥원>에서는 혈연, 학연에 의해 별다른 세력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반해, <완월>에서는 혈연, 학연에 의한 거대 세력을 이루고 있고, <옥원>에서는 대하장편으로는 이례적으로 남주인공 가문이 삼대에 걸쳐 獨子로 설정된 孤孤한 가문인데 반해, <완월>에서는 대하장편 가운데 가장 방대한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남주인공 가문의 정치적 부침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옥원>에서는 정치적 위기의 국면에서 남주인공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형상화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안전한 避身’을 주로 형상화한다.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이 귀양을 가지 만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부친이 귀양을 가지 않는 점, <옥원>에서 남

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위기로 인해 가족이 離散하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미리 준비한 은신처에서 安存하는 점, <옥원>에서는 남주인공의 流離가 부친의 정치적 몰락과 직결되는 데 반해 <완월>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모해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며 점 등이 이를 반영한다.

셋째, 정치적 복귀의 국면에서도 <옥원>에서는 ‘불완전한 복귀’를 이루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완전한 복귀’를 이룬다.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부친이 단지 해배되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여전히 반대파의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공을 세우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복귀한 뒤에는 전혀 반대당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점, <옥원>에서는 남주인공대에서 까지 여전히 반대당파의 공격을 받으며 남주인공이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한 채 短命할 것이라는 불안한 의식이 표출되어 있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대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더욱 더 번성한 가문을 이루는 점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남주인공 가문의 형상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시대적 배경 및 대타적 가문의 설정 또한 두 작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옥원>에서는 남주인공 가문이 당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패배에 가까운 宋 神宗朝의 舊法黨派에 속한데 반해 <완월>에서는 당쟁에서 분명한 승리를 거두는 明 英宗朝 反親征派에 속해 있었다. 또한 남주인공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소인형 장인이 <옥원>에서는 벌열가문 출신인데 반해, <완월>에서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다.

즉 <옥원>은 한미하고 고고한 寒門 출신으로 정치권의 비주류에 속하는 정치적 열세파의 모습을, <완월>에서는 혁혁하고 번성한 가문 즉 上層 閥閥 출신으로 정치권의 주류에 속하는 정치적 우세파의 모습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옥원>과 <완월> 두 작품 가운데 어느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을 가지고 이어진 ‘대응작’임을 논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들을 넘어서 두 작품은 여타의 작품들과는 달리, 정치적 갈등양상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의의를 지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쟁으로 인해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안존의 세계를 구가한 여타의 대하소설과는 달리, 두 작품은 당대의 실상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옥원>에서는 정치적 실각에 따른 가문의 전폭적인 몰락을 형상화함으로써, 또 삼대 독자를 통한 絶孫에 대한 위기 의식까지 그려냄으로써 상층 사대부들이 당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완월>에서는 비록 방계이긴 하나 삼대에 걸쳐 정치적 위기를 겪는 모습을 통해 상층벌열의 화려한 영화 뒤편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늘을 짙게 형상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옥원>과 <완월>에 나타난 정치적 갈등양상의 차이와 그 의미를 밝힐 수 있었으며, 나아가 차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의의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 또한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이 작품들을 여러 측면에서 더욱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본다. 정치적 갈등양상과 더불어 가정내적 갈등양상에 대해서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내용상의 비교뿐만 아니라, 20권 분량의 <옥원>과 180권 거질인 <완월> 간의, 분량상의 차이에 따른 서사기법의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순, 「<옥루몽>에 나타난 남영로의 정치의식」, 『송암정교환박사회갑기념논총』, 창원대, 1995.
- 김종철, 「19세기 장편소설 연구」, 『한국학보』 41, 1985.
- _____, 「<옥수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_____,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3.
- 김진세, 「<완월회맹연> 연구(1)」, 『관악어문연구』2, 서울대 국문과, 1977.
- _____, 「<완월회맹연> 연구(2)」, 『관악어문연구』4, 서울대 국문과, 1979.
- _____, 「<완월회맹연> 연구(3)」, 『관악어문연구』5, 서울대 국문과, 1980.
- _____, 「완월회맹연」, 『황패강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3.
- 김희영 편, 『명나라의 내우 외환』, 『이야기 중국사』, 청아출판사, 1987.
- 박일용, 「영웅소설의 독자층과 향유층 논의」,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범주』, 월인, 2003.
- 서대석, 「<옥루몽>의 갈등구조」, 『한국학논집』1, 1973.
- _____, 「창작군담소설의 유형과 향유층 의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송성욱, 「가문의식을 통해서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혼사장에소설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7,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5, 국문학회, 2001.
- 심경호, 「낙선제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운양 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제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양민정,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8,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3.
- _____,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_____, 「18세기 후반 대하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5, 일지사, 1999.

- 양종국, 『송대사대부사회연구』, 삼지원, 1996.
-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회, 1986.
- _____, 「문헌학적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현황·전망」, 『관악어문연구』20, 서울대국문과, 1995.
- _____, 「<창난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1.
- 이성무 외,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 이은순, 『조선후기당쟁사연구』, 일조각, 1988.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1988.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옥원재합기연> 작가 계론」, 『관악어문연구』22, 1997.
- _____,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 _____, 「조선시대 부부싸움의 역학 : <옥원재합기연>」, 『문헌과 해석』5, 태학사, 1998.
- _____, 「<옥원재합기연> :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 _____,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4, 2000.
-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왕도패도 병용의 정치이념과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 _____, 「<옥수기>의 벌열적 성향-작품세계·향유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한국문화연구소, 2002.
-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최길용,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작자고」, 『조선조연작소설연구』, 아세이문화사,

1992.

최장섭,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1997.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_____, 「<옥원재합기연>의 男과 女」, 『고전문학연구』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石井壽夫 著 · 홍순민 譯, 「후기 이조 당쟁사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이태진 편), 2003(개정판).

제임스 류 著 · 이범학 譯,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1.

K C I

The comparative study of *Okwonjaehapkiyeon* and *Wamwolboemaengyeon*

Han, Gil-yeon

Okwon and *Wamwol* have very similar structure, but have many different points that give shape to this structure. Especially these two works show serious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troubles.

First of all, two works show many differences in the point of the basis of family. In *Okwon* the family can't achieve influence, but in *Wamwol* the family wield power by the blood relations and so on. In *Okwon* the hero's family has the only son through three generations, but in *Wamwol* the family build up the most huge family among river novels.

In the next place, ups and downs of political life come up in according to the different basis of family.

Thirdly, two works have deep difference in the point of background of age and setting up of antagonistic family.

Okwon describes up the political inferiors in origin with shabby and miserable family, but *Wamwol* figures up the political superiors in origin with the upper classes and prosperous family. Trough these comparison the discussion was possible that one of these two works was created in cope with another work, namely counterwork of another work.